

장학금·지원금부터 해외 성지순례까지 승가대학 입학 특전 ‘눈길’

강원

2014년 신학기를 맞는 조계종 승가대학들의 학인 스님 모시기 경쟁이 치열하다.

각종 장학혜택은 물론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춰 아이패드를 지급하거나 해외 탐방 지원, 상급 학교 진학 등 특전을 앞 다퉈 제시하고 있다.

해인사 승가대학의 경우 졸업생에게 중국 청화대와 일본 하나조노 대학원으로 입학할 수 있는 특전이 주어진다. 대만의 법교불교대학, 소리랑카 켈레니아대학과도 학술 교류를 체결해 관련 국가 불교를 접할 수 있다.

동화사 승가대학은 성덕 대학과 협약을 체결해 사회복지과에 입학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모든 학인 스님들에게 교육비를 지급하며 해외성지순례를 지원한다.

봉양사 승가대학의 경우 모염불 교문화재단의 장학금 혜택이 제공되며 4년 간 선재 스님의 사찰을 식 강의를 이수한 학인 스님에게는 세주불교문화원 수료증을 수여한다.

아이패드를 제공하며 차별화된 교육환경을 자랑하는 청암사 승가대학도 구미 대학에 위탁해 사회복지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태극권, 탁구 등 특화 교육도 시행한다.

동학사 승가대학은 신입생들의 입학금을 면제해주고, 전 학년에 교재를 제공한다. 전문 승가대학원 등 역시 연구비 지원과 조교수 자격 부여 등 특전들을 제공한다.

법주사 선학승가대학원은 매일 연구비를 비롯해 연구 논문비, 해외 유학비(졸업 시)를 지원하며, 연 1회 해외 수선조사찰 탐방도 이뤄진다. 최근 전문 승가대학원의 전환된 삼선불학승가대학원은 교재 제공과 각종 장학 혜택 등을 제시했다.

이 같이 전국 승가대학과 승가대학원들이 특전을 제공하면서까지 신·편입생들을 모집하는 것은 출가자 감소로 학인 스님들의 수급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또한 승가대학 운영령이 2009년 전면 개정됨에 따라 나후되거나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기관들은 인가를 취소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쟁이 불가피했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조계종 승가대학령에 제52조에 따르면 △2년 간 학년별 정원 5인 미만인 경우 △2년 간 학인 정원 20인 미만인 경우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1년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조계종 교육국장 가섭 스님은 “학인 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승가대학들도 제대로 운영하려면 교육환경에 변화를 줄 수밖에 없다”면서 “과다 경쟁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교육 환경의 질적 성장을 이뤄내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교육원은 ‘승가대학령’에 맞춰 학인 스님들이 양질의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 교육기관을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종일 기자 mtp79@hyunbul.com



조계종 자성과 쇄신결사 추진본부는 1월 27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결사 3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사진은 참여 대종들이 발원문을 봉독하고 있는 모습. 사진=박재원 기자

3년 맞은 결사 “붓다로 살자” 발원

결사본부, 27일 결사 3주년 기념법회 봉행

올해 3주년을 맞은 조계종 자성과 쇄신결사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법회가 열렸다.

조계종 자성과 쇄신결사추진본부(본부장 도법)는 1월 27일 서울 종로 조계사 대웅전에서 “자성과 쇄신 결사 3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치사에서 34대 집행부에서 진행되는 결사의 기초와 실천 의지를 발표했다.

자승 스님은 “2011년 1월 중단은 자성과 쇄신 결사를 선언하고 민족 문화수호 활동을 시작했다”면서 “처음 결사를 제안할 당시 형식만으로 흐르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지속 여부에 대해 일부의 우려와 불신이 있었지만, 각종 쇄신입법과 법제 직무제도 등 여러 성과를 이루기도 했다”고 자평했다.

스님은 “34대 집행부에서도 결사는 ‘사찰과 함께 사회 속으로’라는 확고한 기조로 실현해 나갈 것이며, ‘붓다로 살자’라는 실천 의지를 통해 결사본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사본부장 도법 스님도 “붓다로 살자’ 운동이 결사의 새로운 터닝포인트가 될 것임을 기대했다.

도법 스님은 “누군가가 결사 3년의 최대 성과를 한마디로 말하라 하면 서슴없이 ‘붓다로 살자’라는 옥동자를 탄생시킨 것”이라면서 “‘붓다로 살자’라는 새싹을 잘 가꾸어 내기만 하면 분명히 한국불교는 희망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3년은 황무지를 개간하고 씨 뿌리는 시기였다면 오늘부터 새싹을 거목

으로 가꾸는 막중한 일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참석 사부대중은 발원문을 통해 붓다로 살아갈 것을 다짐했다. 법회 참석 대중은 “중생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겨 한 생명 빠짐없이 평화와 행복의 길로 이끌었던 붓다의 고귀한 삶과 정신을 따라 지금 여기서 거룩한 붓다로 살겠다”면서 “우리 모두가 붓다임을 한시도 잊지 않으며, 온 생명이 생명평화공동체가 되는 그날까지 붓다로 살기 위해 쉽지 않지만 정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회에는 총무원장 자승 스님, 교육원장 현승 스님, 포교원장 지원 스님, 결사본부장 도법 스님을 비롯해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스님과 일반직 종무원 등 2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관련기사 2면〉 신종일 기자

978호 INDEX

연중기획-탐·진·치 줄이기 5	종합 2·3	학술·문화계 9
정도희, 혜거 스님, 배광성 교수	BBS 부처님 말씀 시즌2 인기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 회의 군종특별교구 첫 수계법회	원측 스님 탄신 1400주년 학술대회
		新 불교건축 안성 도피안사 13
	신행 6	해외 18
	다문화 템플스테이 음악여행	다보스 포럼, ‘마음·몸’ 조화 주력

‘삼국유사’ 목판 복원된다

일연 스님이 저술한 <삼국유사> 목판이 복원된다.

경북 군위군(군수 장욱)은 18억 예산을 들여 2016년까지 삼국유사 목판 복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월 26일 밝혔다. <삼국유사>는 일연 스님이 고려 충렬왕 때 군위 인간사에서 편찬했다. 정덕본·송은본 등 여러 판본이 전해지고 있지만

정작 목판은 남아있지 않다.

군위군은 국보 제306-1호 송은본 등 현존하는 인쇄본 가운데 상태가 가장 좋은 것을 선별해 이를 바탕으로 목판을 복원할 계획이다.

군위군은 “<삼국유사> 목판복원사업은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전통문화 계승·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종일 기자

새 종책모임 ‘원융회’ 창립

舊 무량회 장명 스님 등 종회위원 4명 이탈

조계종 제34대 총무원장 선거 이후 노선 갈등을 빚었던 종책모임 舊 무량회가 결국 분리됐다.

舊 무량회 소속 종회위원인 장명, 법보, 태연, 도정 스님은 1월 26일 “새 종책모임인 ‘원융회’를 창립한다”고 밝혔다. 회장은 장명 스님이, 종책위원장은 도정 스님이 맡기로 했다.

회장 장명 스님은 본지와와의 통화에서 “26일자로 창립 선언을 했고, 종회회장 항적 스님도 심적당인 동의는 했다”면서 “4명으로 시작하지만 문호는 열어놓았다. 본 모임과 뜻을 함께 하는 대종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舊 무량회에서 분리한 이유가 선거 이후 노선 갈등이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았다.

장명 스님은 “선거가 끝나고 야당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 이견이 있었고, 위축된 부분도 없지 않았다”면서 “현 집행부가 잘하는 것이 있다면 격려하는 것은 맞지만 야당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비판과 견제이다. 건전한 비판과 견제가 이뤄지기 위해서 새 종책 모임을 출범한 것”이라고 말했다.

원융회의 창립으로 3자연대의 통합 가능성은 높아졌다. 원융회는 설 연휴 직후 간담회를 열고 통합적 협의체 구성이나 긴밀한 연대를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장명 스님은 “3자연대 내에서 통합적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긴밀한 연대를 추진하는 방안을 설 연휴 이후 간담회 등을 열고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종일 기자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2014년 한마음아버지마당 교육생 모집

내가 행복해야 가족이 행복합니다

교육일정 및 신청방법은 www.hansi.org 참조 / Tel. 031-471-6926~7

성종사, 대만 최대 불광산사 범종 수출!

세계로 수출되는 성종사 범종! 우리의 자랑스런 불교문화유산입니다.

최근 세계적인 범종 제작회사로 거듭나고 있는 성종사가 대만 최대 사찰인 불광산사 범종을 수주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대만 최대 규모인 6,700관 (25.5ton)으로 제작된 본 범종은 성종사 특허공법인 밀랍주조공법으로 제작되어 표면과 문양이 매우 매끄럽고 섬세할 뿐만 아니라, 음향측정 결과에서도 소리가 매우 웅장하고 맥놀이가 뚜렷하다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성종사의 범종은 대만, 중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전세계 불교권 국가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는 종을 위해서
한쪽 눈을 바쳤어
흔을 담아야 천년의 소리가 나오는 거지
잔제주 부리면 끝이야! 끝!

고객을 위한 원칙과 고집
한국의 명장,
당신의 마음을 배우겠습니다!

● 전사관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TEL 02)733-6141 / FAX 02)733-4840
● 사이트 : www.sungjongsa.co.kr / E-MAIL : sungjongsa@hotmail.com
● 공 장 : 충북 진천군 덕산면 함목리 406-28 TEL 043)536-2581 / FAX 043)536-2582
● 대 표 : 범산 원 광 식 (중요무형문화재 제 112호 · 대한민국 명장)